

## 행정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

주 병 덕 지사님께,

21세기 힘있는 총복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시대를 맞아 우리도의 미래 설계와 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지역개발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우리의 현안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어 나갈 수 있게 되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자치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과 국가적, 범광역적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특히 혐오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님비(Nimby)현상과 자치단체간의 자치권 분쟁은  
지방자치의 폐해로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최대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시대를 맞아 대규모 국토개발 및 지역 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면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크게 변동하였으나,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 초래는 물론 지역 공동체 의식  
이 약화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도에서도 행정구역 조정 추진 지침을 시달하여 조사한 바 4개군 5개면 9개리를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로 선정하여 왔습니다.

그중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도장마을은 주민투표에서 18세대중 17세대인 94.4% 찬성과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 그리고 청원군수 및 군의회 찬성으로 청원군 오창면으로 경계조정안이 우리 의회에 의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다른데서 오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양측 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 마을은 주민투표에서 55세대중 54세대인 98.2% 찬성과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으로 진천군 만승면으로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풍리는 1914년까지 진천군에 속해 있었으며 학구, 전기, 전화, 교통, 금융, 시장, 인과관계등 모든 생활권이 진천군 만승면임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회 반대결의에 따른 실태조사서 미제출로 1년동안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 제155조의 규정에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있으며 실례로 내무부에서 1995년 7월 발행한 행정구역 개편 백서에 보면 시도간 경계조정 7곳과 시군구간 경계조정 42곳 모두가 당해 지방의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주민이 찬성한 곳은 100% 조정하여 통·폐합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며,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 한다는 지방자치의 본 뜻에 적합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50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지사님,

우리도에서도 자치단체간 협조와 조정 등으로 우리의 공동 이익을 얻어낸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

예를들면 얼마전에 준공한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장은 혐오시설을 두 군과 도가 협조와 조정으로 이루어낸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만 하면 지역의 현안과 주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민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 태어나 살고 있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의 균형 발전과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변경의 건도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실것을 1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촉구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 6. .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